



역사 인식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이를 이루기 위해 역사를 부단히 새로 써야 한다. 즉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는 인간(역사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푸코의 계보학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크리스티 교도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았고, 티아몽(Sebastien de Tillamont)은 17세기 프랑스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18세기 역사학자 기번(E. Gibbon)은 영국인의 입장에서, 19세기 뎀젠(T. Mommsen)은 독일인으로서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늦게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은 그것을 택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본 유일한 관점이었던 것이다.

정통성(legitimacy)과 역사의 평가

명(明)의 최전성기를 이룬 제3대 황제는 영락제(永樂帝)이다. 그는 태조(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북경에 갇혀 있었던 연왕(燕王)이다. 태조가 죽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이를 이루기 위해 역사를 부단히 새로 써야 한다. 즉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는 인간(역사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태자마저 이미 죽은 상태였으므로 황태손인 윤문(允文)이 즉위하여 건문제(建文帝)가 되었으니 연왕은 그의 숙부이다.

연왕은 뛰어난 인물로 환관의 꼭두각시가 된 어린 조카(건문제)와 간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위에 올라 제3대 황제(영락제)가 되었다. 연왕의 측근들은 당대의 거유(巨儒)인 방효유(方孝儒)에게 황제 즉위에 따른 조칙(詔勅)을 기초하도록 건의했으나 그는 연왕이 찬신(簪臣)으로 정통성이 없다고 거절했다. 연왕은 방효유와 그의 9족을 모두 처형하니 무려 847명이 되었다.

조선 왕조의 수양대군도 어린 조카인 단종과 두 명의 동생인 대군(안평과 금성), 김종서를 포함한 고명대신과 사육신, 그밖에 수많은 반대 세력을 참살하고 왕위(세조)에 올랐다.

그렇다면 정통성(legitimacy)이란 무엇일까? 정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통성을 갖는 것은 공정한 선거로 성립된 정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정부는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해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락제나 세조는 무고한 피를 흘리고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왕권을 찬탈했으나 제위 기간 중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미국발(發)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이념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져왔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 미국이 남미 국가들의 경제 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세계 개혁, 무역, 투자 자

유화, 탈규제화 등에 관한 10여개의 정책으로 미국식 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정치·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 자유주의 정책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 위기로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 패권주의를 극대화한다는 비난으로 힘을 잃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과 연관된 '베이징 컨센서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 원리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케인스주의의 도래, 국가 자본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인가?

진짜 자유, 가짜 안전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고립되어 있으면 교양 있는 개인일지 모르나 군중 속에 있을 경우에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들은 평화로운 관습으로 계몽된 시민이었으나 혁명이 일어나자 군중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몇몇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 가장 결백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단두대로 보내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군중은 고립된 개인보다 항상 지적으로 열등하다. 그러나 감정이 불러일으킨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군중은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다. 개인의 스칼라(scalar)적 성정이 군중인 경우에는 벡터(vector)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즉 군중은 가끔 범죄적이기도 하지만 종종 영웅적이

되기도 한다. 군중의 특징은 충동성, 과민함, 이성적 사고의 결여, 판단 및 비판 정신의 부재, 감정의 과장 등으로 표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이나 종교 전쟁은 국왕이 일으키지 않았던 것처럼 로베스피에르, 당통, 생쥐스트가 공포 정치 시대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런 사건들의 이면에는 항상 군중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치의 법률 이론가인 칼 슈미트는 '예외'라는 개념을 도입해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가장 지적인 이론가로서 '파시즘 거버넌스'의 본질을 명료한 언어로 설명한 인물이다. 슈미트와 나치 지도자들은 예외적이란 보편적 확신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한 예외적 상황을 영구적인 비상 사태로 전환함으로써 적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진짜 자유와 가짜 안전을 맞바꾸게 된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테러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의 이름으로 자유를 포기하도록 유인할 때 시민들은 조심해야 한다. 자유와 안전을 맞바꾸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거래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자. 1933년 2월 27일 독일의 의회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민주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 정권이 포악한 나치 정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당 화재는 독일의 적들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주장한 히틀러는 이 사건을 이용해 그 해 3월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수권법」을 통과시켜 그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2년간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